

漁港이용調整事業강연 | 日, 海洋産業研究會서

이번에 개최한 (社)海洋産業研究會 定例研究會에서 수산청 어항부의 坂井淳計課長은 「어항이용 조정사업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이중 坂井과장은 「일본은 구미와 달라서 어업권이 확립되어 있어 바다에서 자유로운 레저개발이 안된다. 따라서 일본형의 어업과 일체화된 해양레크레이션 개발이 필요하다.

1987년도 부터 어항이용 조정사업은 이 취지에 따른 사업이며 민간각사(各社)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등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강연을 하였다.

- 유어선대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 ① 유어와 어업의 어장이용 경쟁
- ② 유어안내업의 적정한 발달
- ③ 유어자의 메나의 나뭇과 어업자간의 상호이해
- ④ 안전확보
- ⑤ 유어성 수용시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전업 유어선이나 오토 모터보트 등의 비어선 등록선은 어항구역내 정박선의 12%를 점하며, 무시할 수 없는 수에 달하고 있다고 하며 양케이트조사 (유어선이용이 있는 어항 약1,900개항 대상)에서도

- ① 안벽·주변도로에의 주차
- ② 쓰레기 투기
- ③ 유어선 무허가·무계출정박 등이 지적되었다.

- 따라서 수산청에서는 1987년도의 신규사업으로서 어항이용사업을 책정하였다. 이것은 운수성

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정비에 대하여 어업측에서 어항정비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으로 유어선 수용을 위하여 어항확장과 고품화 지선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마린레저유치 등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1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운수성에서는 관광개발 뾰트산업등의 방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연안에서 50~100m까지의 수역은 어업·양식업과 항만, 항로이므로 전혀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수산시설의 소재를 알지못하면 바다에서는 놀지 못한다. 때문에 어업과 레저를 혼합한 정비가 바람직하다.

조정시설에 있어서는 어항가가 건설하는 레저의 거점으로서 놀이장소의 제공, 지선산품(産品)의 판매 등으로 고용기회의 창출 등이 주된 기능이 되나 개인생각으로는 「해황, 관광·레저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에 있어서는 각어협도 찬

성은 하고 있으나 유어에 의한 어장황폐화를 염려하는 어업자도 있으며 난색을 표시하는 어협도 있는 것이 현상이다.

- 레저와의 겸업에 있어서는 어업측에서는 경험이 적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어항·어촌진흥어련에 사무국을 두고 「어항이용 조정시설 운영연구회」를 설치하고 시설의 운영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제8차 어업 센사스」에 의하면 유어와 겸업어가는 2만4천호(13%)로서 관광과 겸업농가에 비하면 전업율이 높다. 그러나 금후, 어가의 부수입의 길로서는 역시 해양레저·관광사업이 주력이 될것이라고 예상됨으로 연구회에서도 새로 자세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구미와 다르게 어업권이 있기때문에 바다의 자유개발은 할 수 없다.

앞으로 일본형의 어업과 일체화된 해양성 레크레이션개발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泰國, 바구바난河口에 現代漁港건설

태국의 수산유통공사 FMO는 일본정부의 해외협력무상자금을 얻어서 “바구바난”하구에 근대적인 어항을 건설, 4월중에 왕비 임석하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새 어항은 약2백m에 달하는

양육안벽을 비롯하여 하물처리장, 유통시장, 냉동·냉장고, 자재창고, 어부센타, 어항관리사무소, 주차장 급수, 배수처리시설 등을 갖춘 종합적인 수산기지로 되어 있으며, 태국의 어업진흥과 수산물유통에 큰 역할을 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태국의 수산업은 샤무만을 주어로 장으로 고등어, 멸치, 새우, 게, 오징어 등을 자망, 저인망, 선망 등으로 어획하고 있으나 어선규모가 적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량에 비하여 연간 어획량은 2백톤 정도이다.

특히 나콘스타마랏현의 어선은 약2천 척이 있으나, 현재의 어항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선은 다른 현의 어항에다 양육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국정부는 지난 1985년 나콘스타마랏현의 어업진흥을 위하여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나콘스타마랏 어항건설계획을 구상, 일본국에 무상자금협력요청을 하였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받아 들이고 1987년 1월 하순부터 2월상순에 걸쳐 국제협력사업단의 무상자금으로 수산청의 下村政雄씨(당시 협동조합과장 보좌, 현기획과 수석기획관)을 단장으로 5명의 사전조사단이 태국을 방문하여 나콘스타마랏어항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태국정부와 협의하여 계획실시에 대한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어항건설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일본정부는 1987년도에 약12억엔 1988년도에 약13억엔을 무상으로 협력하고 나콘스타마랏현의 바구바난 시가지의 하류 약5km의 왼쪽편의 약18헥타의 저습지 지대를 토지개량하여 근대어항을 건설하였다.

종목 추가 (쓰레기 처리시설)

③ 해안기능 고도화사업 (상쾌한 어촌 해안정비)

④ 해안환경국부개발공사의 창설이다.

「풍요한 어항어촌 정비」는

첫째, 어항정비에 있어서 녹지기능과 친수기능을 갖고 방파제·호안·물과 녹지를 가까이 하는 보행자·자전차 전용도로 등 다면적인 기능을 갖고 어항의 경관 및 이용자의 쾌적성을 높이는 시설정비와

둘째, 낚시터, 인공모래밭, 캠프장, 이벤트광장 등의 어항이용자, 지역주민의 뉴스에 대응하는 시설장비

셋째, 바다의 이용과 해안경관과의 조화된 해안보전시설의 정비, 낚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

넷째, 공유지조성 호안 등의 정비를 한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추가」

어항내에 발생 하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어항의 경관보지와 작업효율의 향상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쓰레기 수집소 또는 간이소각시설 등을 정비한다.

「쾌적한 어촌 해안 정비」사업은

고조대책사업 또는 침식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배후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율파·비말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화가 현저하고 대규모 개수를 필요로 하는 지구로서 총사업비가 원칙으로 1억엔이상 인 곳을 대상으로 이안제(잠제포함), 돌제, 호안(제방포함) 등의 기본적인 시설과 비말방지공(식재), 소파공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日, 漁港法施行40周年紀念행사 盛況

일본 수산청 주최의 「어항법시행 40주년·어항심의회 150회기념」 간담회가 2월27일 농림수산성 별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산청간부·어항부 관계자는 현재와 과거의 어항심의회위원, 역대 어항부장, 과장, 각현 어항과장 등 약15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웠다.

제1기 심의회위원의 伊藤佐十郎氏와 제2기위원의 前谷重夫氏(元

수산청 장관), 초대어항부장인 林眞治氏 등 원로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수 출석하여 이번 행사의 계획을 한 福屋縣 어항부장이 크게 만족하였다. 이번 모임은 同窓會와 같은 온화한 가운데서 회의장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어항정비의 진전은 이번 모임의 사람들이 주역이었다라는 자부심을 갖기로 했다.

日, 水産廳 全國漁港 主務課長회의

日本水産廳 漁港部는 전국어항관계 주무과장 회의를 열고 1990년도 어항관계예산 신규사업 내용과 계획·건설·방재해안 3과의 소관사항과 조사 및 유의사항 등을 요청했다.

어항부 관계의 1990년도 신규사업의 큰 항목은

① 마리노베이슨 거점어항 어촌 종합정비사업 5개항(풍요한 어항어촌정비)

② 어항환경정비사업의 사업

요한 시설의 신설과 개량을 행하는 사업이다

해안환경정비사업 국부개발공사₁는

시설의 해안보전시설이 있는 해안으로서 해수욕객 등의 이용

과 일체적으로 짧은 연도내에 정비하는 것으로서, 계단공, 계단공과 유보도, 계단공과 식재 등으로 한다.

도가 높은 해안에 유보도(遊歩道)또는 식재를 계단공(階段工)

계자들이 참가하여 어항안전을 위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금년에도 제26회 해외어항조사단을 파견하도록 하였으며, 이번에는 영국, 노르웨이, 독일의 3개국을 15일간에 걸쳐 방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조사단에 참가할 사람들의 모집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지 : 해외의 주요어항에 있어서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친선의 실을 거양하고 각종 어항시설의 현상과 배치계획, 어항배후지의 이용계획, 시설의 관리운영제도 및 어촌의 환경정비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국제적 식견을 높임과 아울러 새시대에 부응하는 어항과 어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내용

- ① 기본시설 : 방파제, 안벽, 박지 등
- ② 기능시설 : 어시장, 어획물수송시설 등
- ③ 생산물처리시설 : 냉장고, 제빙냉동가공시설 등
- ④ 어항관리운영제도 및 어선과 어획물 유통기구의 현상
- ⑤ 윗트, 모타 보트 등 레저용 선박과 어선의 어항이용 조정실태
- ⑥ 어항의 각종 서비스시설 등

3. 조사기간 : 1990. 9. 4 ~ 9. 18지 (15일간)

4. 조사경비 : 백만원 (1인당)

靜岡縣漁港協會시찰研修

靜岡縣어항협회는 2월 7일부터 2박3일간 德島, 兵庫 두 縣의 어항을 시찰 연수했다. 동 어항협회에서는 매년, 縣의 의어항을 시찰 연수하고 있으며 금년은 23회로서 縣과 市·町의 어항담당

자, 수협임직원, 협회사무담당자 등 약20명이 참가하여 德島縣의 大浦, 粟田, 瀬戶, 兵庫縣의 尾崎, 垂水, 林崎의 각어항을 시찰하고 현지 어항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

九州農政局 제8차 漁業센서스

日本九州農政局은九州의 제8차어업센서스 조사결과를 개요를 종합 정리했다.

이 조사는 1989년 11월 1일 현재로 실시한 것으로서 구주의 어업관리조직은 265조직으로서 이를 縣별로 보면 長崎縣이 90, 다음이 鹿島縣 84로서 이 두 縣이九州전체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어항과 어업관련시설 관계에서는 조사기일전 1년간에 어선이 이용한 어항수는 1,128개항으로서 5년전에 비하여 41개항이 증가하였다.

또 어항의 기본시설상황을 보면 방파제의 길이가 468km로서 5년전에 비하여 72km, 안벽의 길이는 275km로서 44km 물양장의 길이는 414km로서 78km로 각각 증가함으로써 시설이 충실히 진전되었다.

어업지구내의 냉동·냉장공장수는 1,359개로서 5년전에 비하면 19개 공장이 감소되었으나 1일의 능력을 보면 제빙능력은 4,662톤으로서 5년전에 비하여 898톤, 동결능력은 9,870톤으로서 5년전에 비하여 4,153톤이 각각 대폭 증가되었다.

日, 全國漁港協會, 海外조사단編成

全國漁港協會에서는 1965년부터 매년 해외어항조사단을 편성하여 해외어항의 總合調査를 실

시하고 있다.

이 조사단은 都道府縣 市町村 어업협동조합 및 건설업계의 관